

도로에 갇힌 돌하르방...문화재 위상 무색

도로 아스콘 등으로 덮여 '눈살'..."위치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데스크승인 2014.02.0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일부 돌하르방이 문화재란 위상이 무색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대정지역 일부 돌하르방은 하단이 도로에 파묻혀 마치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 보는 이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성리사무소와 보성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돌하르방들은 하부가 도로의 아스콘 등으로 덮인 채 서 있다.

더욱이 보성초 입구 돌하르방들의 경우 전신주와 바짝 붙어 있거나 뒷면이 시멘트 담장에 닿아 부실한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돌하르방의 얼굴은 두 동강 났다가 시

멘트로 붙여놓은 흔적도 남아있다.

도민들은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에 대한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며 “돌하르방들의 위치도 대부분 원래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데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상의해 돌하르방을 덮은 아스콘을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돌하르방의 위치 복귀는 대정성의 복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